믿음과 뇌물죄의 혼합 금지

(에스라 4:1~24)

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 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뇌물죄의 혼합금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과 뇌물죄의 혼합금지'
고레스 왕 3년 BC 536년에 성전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공작에 의해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인 BC 520년에 다시 시작된 성전재건은 BC 516년에 끝나게 됩니다.

유학시절에 황당한 에피소드가 서너 차례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장기간 공부를 하다보면 한국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들에게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일 교수님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평가하고 지도해야 될 입장이고 논문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요즘 탄핵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논문을 각하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공부했던 신학 분야에서는 100명이 유학을 가면 10명 정도가 공부를 끝낸다고 보

면 됩니다. 이렇듯 지도교수의 권력이 박사학위 통과에 관해서는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교수에게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이분들의 정서에서는 뇌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상식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뇌물죄가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1억 미만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3,0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몇 백 억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최순실에게 받은 옷값 3,000~4,000만 하더라도 확정되기만 하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뇌물죄에는 받는 수뢰죄가 있고 주는 증뢰죄가 있습니다. 증뢰죄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나라가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사실은 다 기독교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으로 가득 차버린 소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과거에는 모두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점점 커지는데 기독교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 문화라고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1,200만에 이른다고 했던 교인 숫자가 이제는 600~700만정도로 쇠약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과 뇌물죄가 교회 안에서 혼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믿음이 아니라 증뢰죄가 되는 동안에 복음과 교회는 소멸되고 맙니다. 이처럼 교회 약화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집단이 뇌물죄의 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선민이 믿음의 집단이거나 뇌물죄의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재건이 시작됩니다. 앞장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지내고 초막절의 번제까지 지냈으며 날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장이 무려 사천 명이 넘게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는 준비를 하는데 이미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성전건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BC.722년에 북 왕국이 망하고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BC.53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되어서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2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신앙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

기네들도 성전재건에 참여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가로막았든지 재료들을 빼돌리기를 했든지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절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재건을 막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이하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그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는 훨씬 뒤의 왕입니다. 이들에게 보냈던 고발장은 성전재건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전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냈던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성전재건을 방해한 것처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전재건이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사탄에 의해서 강하게 방해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전 생활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적 기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아하수에로 왕보다 몇 대나 앞선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이어 일어난 일처럼 기록함으로서 세상이 얼마나 지독하게 성전 생활화를 막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로생활을 하다 돌아온 자들 중에는 길게는 칠십 년 만에 짧게는 오십 년 만에 돌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워두었던 본토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머물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성전재건도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도 어찌됐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환한 자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방해를 받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의 도움을 강하게 거절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착안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들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점과 귀환자들이 바로 앞장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지만 번제를 우선시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들과 귀환자들의 제사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뇌물로서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귀환자들이 드렸던 번제는 자신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마음은 성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담긴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앗수르로부터 이주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고 있었다면 돈을 벌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돈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사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도 농사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관장하는 신의 힘을 빌리려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믿어지

는 대상들의 이름을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성의 뇌물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그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겠다며 하나님께 뇌물로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한술 더 떠서 다른 신(돈 건강 형통 등)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뇌물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물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멸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에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을 언도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증뢰죄가 더해진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신을 믿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중형에 처해지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는 마음은 이와 다릅니다. 현실에서 돈에 쪼들릴 때에 마음으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게 돈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민은 그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지성소에 들어온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수 없을 때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생깁니다.
선민은 그것이 걱정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아무 죄가 없는 어린양이 죽을 때에 그것을 자신이 죽는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증뢰죄를 범하는 것은 곧 마음에는 세상 것을 담고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적 가치를 담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모두 뇌물죄와 증뢰죄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 길로 향하게 되는 위험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죄악을 숨기고자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전의 구성을 마음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법궤 안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재건을 방해했듯이 마음에서 번제의 필요성을 제거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 생활화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평면도는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내가 지금 무엇으로 배부르려 하고, 등대가 의미하는 대로 무엇으로 판단하려 하는가를 보고, 분향단이 뜻하는 대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전재건을 방해했다'는 것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진단 방법을 제거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죄악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가족이 잘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고 기뻐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성실한 부모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전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가치를 담고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증뢰죄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의 심령을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와 선민들의 번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